

진안 '신나는 예술여행'

12일 오전 10시30분 마이홀에서 가족극 '푸른 하늘 은하수' 공연

진안군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가족극 '푸른 하늘 은하수'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2017 신나는 예술여행-대규모공연 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올 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2017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으로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유쾌한 가족극 '푸른 하늘 은하수'

는 동요의 아름다운 선율을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추억을 안겨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2017 신나는 예술여행-대규모공연 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올 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2017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으로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유쾌한 가족극 '푸른 하늘 은하수'

한편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분부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연극을 발전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극단의 교육과 지도에 힘쓰며,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1982년 설립되었다.

현재 119개 극단과 극작가, 평론가, 기획자, 연구자 등 38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아시테지 국제아동청소년축제'와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를 개최해 국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래프팅 체험 선사

무주군래프팅협회, 40여 명 대상... 9월에도 체험행사

무주군래프팅협회의회가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 래프팅 체험행사를 실시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체험행사는 지난 2일 부남면 하골암리 일원 금강에서 진행됐으며 40여 명이 황새연 승차장을 출발해 부남면 용포리 수석가든 입구 앞 하차장까지 약 3km(약2시간 소요) 구간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같이 물에 빠져도 보고 신나게 노도 저어보고 너무 재밌는 하루를 보냈다"며 "다음엔 엄마빠랑 꼭 같이 오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군래프팅협회의회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연중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에는 전라북도 내 소외 아동과 청소년들을 초청해 무료 래프팅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상 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해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며 "신나게 떠들며 웃던 아이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군정 발전 위해 학습연구 진행

군, 형설지공 학습동아리 발족

무주군은 4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형설지공 학습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동아리별 연구과제 발표와 학습동아리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정수 군수는 "열정이 모여 공동체의 작은 변화가 유도되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무주발전과 주민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 달라"고 말했다.

형설지공 학습동아리는 공동 관심주제를 연구해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올해는 4개 동아리 29명이 △지적·토지관리 관련 업무방식 개선 △업무수행 능력 향상, △군정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무주군의 비전과 행정혁신을 위한 군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학습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동아리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얻는 아이디어들이 결국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업무능력도 키우고 지역발전, 군민행복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동방제유 준공 · 식품기업협 발대식

장수농공단지 2공장 설립... 입주기업 장모님반찬 등 5개 기업 협의회 발대

장수군 농업회사법인 동방제유(주) 주관으로 지난 3일 '동방제유 준공식 및 식품기업협의회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동방제유 준공식과 장수농공단지 식품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입주되어 있는 5개 기업(동방제유, 장모님반찬, 윤채, 산머루식품, 청정장수오미자)의 식품기업협의회 발대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동방제유(주)는 참기름 및 들기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경북 영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6년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일환으로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장수군으로 유치됐으며, 장수농공단지 2공장을 설립했다. 2공장은 부지면적 5,800㎡이며 공장면적은 1,242㎡이다.

이날 준공식은 장수군 농업인을 비롯해 한영희 부군수, 유기홍 군의회



장수군 농업회사법인 '동방제유' 주관으로 지난 3일 '동방제유 준공식 및 식품기업협의회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장, 양성진 전라북도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업 경과보고와 축하테이프 컷팅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이번 준공식 및 식품기업협의회 발대식을 통해 장수농공단지 식품산업 집적화로 장수식품 산업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해설사 양성 1차 교육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대표 주민 대상

진안군은 4일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진안군 대표 9개 마을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1차 교육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강당에서 진행했다.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기간 진안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과 마을만들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8월 3일까지 10회차 75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을해설사로 양성된 주민은 그 동안의 마을만들기 활동 경험을 토대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 생태, 먹거리 등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직접 알리고 소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해설사 양성을 통해 마을만들기전국대회 기간 진안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외부로는

마을만들기 선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내부로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확대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매년 전국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학습하기 위해 400여 팀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 곳으로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을 찾는 방문객들 대상으로 마을해설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지역 소식통

장수군, 생활권주변 피해목 제거

장수군 산림복지과는 2017년 1월부터 보유 중인 임업기계장비 및 패트롤사업단(12명)을 활용, 생활권주변의 피해목을 일괄정비하여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장마태풍 대비 생활권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절기 태풍피해 도래에 따라 강풍, 폭우 등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산림재해 예상구역을 사전 점검하여 긴급재난지인 경우 안전재난과와 공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진안군은 4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방사선 등 민간인을 포함한 총 3개반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해 폐기물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악취와 축산폐수배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배출과 불법 소각에 대해서도 주·야 감시망을 통하여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풍면, 철목사거리에 꽃 심어

무풍면은 최근 국도 30호선 무풍면 회도도로 철목사거리 일원에 꽃을 심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무풍면부녀회 회원들을 비롯한 무풍면생활개선회와 공무원 등 80여 명이 함께 했으며, 300㎡ 면적에 천일홍 4,000본, 맨드라미 1,600본, 메리골드 330본, 페튜니아 2,680본, 구절초 2,260본 등 10,870본을 심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꽃을 심은 이상형 면장은 "오늘 심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우리고장 무풍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아름다운 무풍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우리 무풍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무풍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이 항상 앞장 서 지역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풍면에 따르면 관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월부터 주요 국도변에 구절초와 백일홍, 양귀비 등 3만여 본의 꽃을 심었다. /무주=전문선 기자